

Everything is per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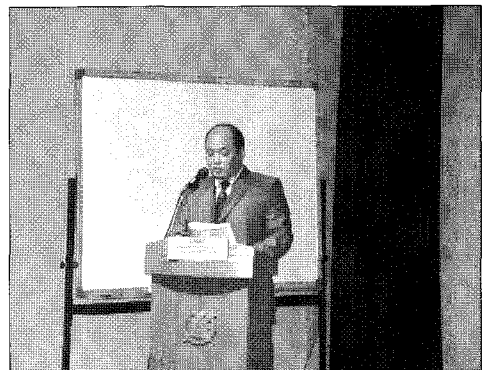
심재석*

2004년 10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대학박물관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University Museums and Collections, 이하 UMAC) 학술회의가 시작되었다. 배기동(한국대학박물관협회)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제대학박물관위원회 서울회의가 막을 올렸다.

이번 서울대회는 서울세계박물관대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이하 ICOM)의 행사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UMAC 학술회의는 매년 국가를 달리하면서 진행되어져 왔다. 피터 스탠베리(Peter Stanbury)교수의 절대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UMAC은 지난 수년간 대학박물관의 발전과 활동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박물관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기능인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의 대학박물관과의 교류영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대학박물관협회는 협회차원에서 서울 UMAC 회의진행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2003년부터 진행해 왔다. 영남대학교박물관장인 이청규 교수와 경주대학교박물관장인 강봉원 교수는 지난 해 2003년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열린 UMAC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대학박물관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대학박물관의 활동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한국대학박물관협회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회를 유치하면서 구미중심의 UMAC의 활동범위를 다양화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재, 그리고 한국대학박물관의 활동에 대한 호기심은 많은 회원들이 서울대회에 참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지난 7월, 피터 스탠베리 UMAC 회장이 서울을 방문했다. 10월에 있을 서울대회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대회일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논문 발표와 관련된 발표자와 논제에 대한 검토 작업과 함께 일정을 함께 조정을 했다. 서울일정을 마친 후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답사일정을 숙소부터 답사지역 사전 점검을 직접 꼼꼼히 살펴본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Everything is perfect." 그야말로 모



사회를 보고있는 필자(서울대)

* 영남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든 것들이 완벽하고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호주로 돌아간 이후 일정확인과 조정 작업은 전자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꾸준히 새로운 내용들로 업데이트 되었다. 한 치의 오차도 만들지 않겠다는 스텐베리 회장의 치밀함에 한 번 더 놀라게 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상호연락을 통한 대회준비는 대회 당일까지 이루어져 왔다.

2004년 10월 4일, ICOM 일정은 이미 10월 1일부터 진행이 되어왔지만 UMAC 일정은 바로 이날 10월 4일이 대회 첫째 날이다.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장인 배기동 교수(한양대학교)의 '한국의 대학박물관' 주제로 학술회의는 시작되었다. 코엑스 지하에서 한국대학박물관 측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침 필자의 발표일정이 오후에 있었고 필자는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나오니 새로운 임무가 한국대학박물관협회로부터 전해졌다. 이튿날 진행되는 서울대학교박물관 발표 일정을 진행해 달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10월 5일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코엑스에서 오늘 일정이 진행되는 서울대학교박물관으로 이동을 하였다. 서울대학교박물관 강당에서 서울대학교박물관장인 김영나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필자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발표 진행을 맡으면서 타이머를 한 손에 쥐고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충분히 사전에 발표시간 엄수에 대한 주문을 하지만 늘 그랬듯이 발표내용보다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무사히 예정된 시간에 발표일정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서울대학교박물관과 규장각을 둘러 본 후 서울대학교에 주최하는 만찬을 즐기면서 UMAC 회원들과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원 간의 소개와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낸 후 숙소로 돌아갔다.

필자와 이청규관장은 연 이틀간의 바쁜 서울일정을 보낸 후 심야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대구로 이동을 했다. 다음날 영남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다. 정신없이 버스에서 자고 나니 어느새 새벽에 대구에 버스는 도착을 했다. 집에 돌아가서 자는 등 마는 등 샤워만 하고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출근을 했다. 사전에 모든 것을 확인을 했었지만 완벽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재차 확인을 한 후 한숨 돌리는데 서울에서 올 예정이던 UMAC 회원들의 버스가 도착예정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남대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간사인 김윤아 선생님께 전화를 했더니 배기동관장님의 권유로 경치가 좋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중앙고속도로로 오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안심을 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안전인데... 하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이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버스는 무사히 영남대학교에 도착을 했다. 5시간 정도의 긴 여행에 지친 몸을 잠시 쉴 수 있게 먼저 국제관에 체크인한 후 영남대학교의 자랑거리 중



영남대학교 민속원에서 환담을 나누는 모습

에 하나인 2만여 평에 이르는 공간에 다양한 전통건물들로 이루어진 민속원에서 간단한 다과회를 겸한 민속원 투어를 진행했다. 대학 캠퍼스에 다양한 형태의 전통건물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민속원의 규모는 참가자 전원이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때마침 활짝 피어난 코스모스가 민속원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

10월 6일 아침, 민속원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 소리로 잠을 깬 회원들은 하루를 보낸 영남대학교 국제관 옆에 위치한 민속원 주변을 산책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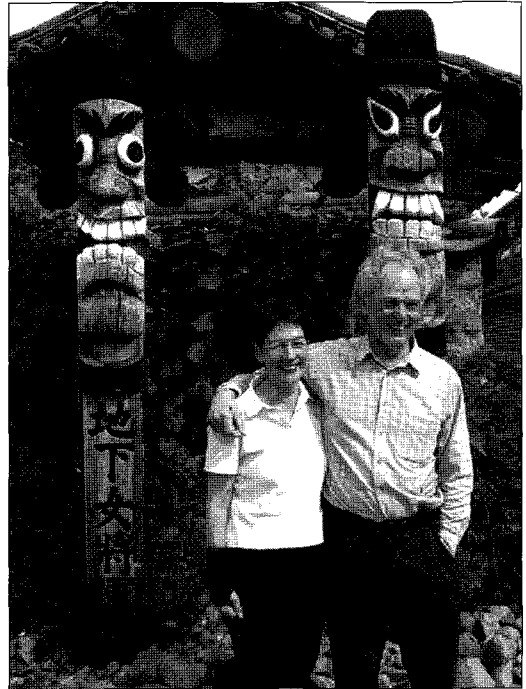
서 담소를 나누었다. 어제 있었던 영남대학교박물관 로비에서의 전통 궁중무, 가야금연주, 그리고 대금연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침식사 후에 떠나는 경주지역의 답사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국제관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버스에 오르는 회원들의 얼굴에서 낯선 동양의 한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의 하룻밤이 그들에게는 색다른 느낌을 주게 한 것 같았다. 경주 양동민속마을로 이동하는 동안 버스 안은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처럼 다소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대학박물관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약 1시간이 흐른 후 양동민속마을에 도착했다. 영남대학교박물관 성태규 박사의 양동마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시작되었다. 성태규 박사의 특유의 청중을 사로잡는 유머와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화술 덕분에 그 특유의 뉘앙스를 그대로 영어로 동시통역을 해야 하는 필자로서는 곤욕이었다. 하지만 공간과 마을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시작된 양동마을에 대한 이야기에 세계 각국에서 온 회원들은 어느새 그 이야기에 푹 빠져 들었다. 늘 그러했듯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서둘러 양동마을을 빠져나오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경주교동으로 버스는 향했다. 경주 교동에 있는 한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때 마침 학생들의 수학여행시즌과 겹쳐져서 박물관 마당은 물론이거니와 전시실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참가자들은 박물관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는 눈빛들이었다. 먼저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에 있다는 사실과 또한 무질서함에 놀라는 것 같았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일정을 마친 후 우리는 계명대학교로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계명대학교에서 있을 저녁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다.

이번 UMAC 서울대회의 성과는 세계 23개국에서 온 학자들의 발표문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회원국들에서 온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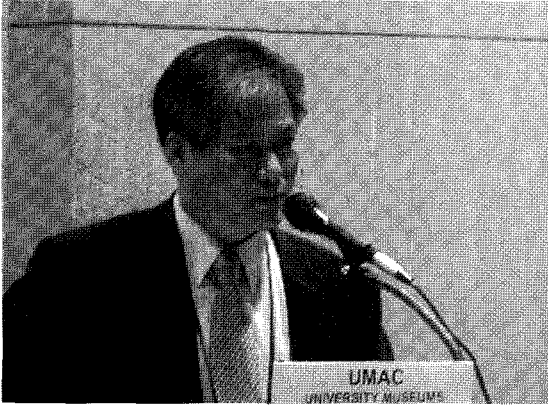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대학박물관의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전반적으로 구미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여건의 대학들이 있지만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대학박물관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운영은 참석자들이 모두 탄성을 지를 정도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한국 대학박물관의 위상이 더욱 올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남대학교, 경주, 계명대학교로 이어지는 답사일정은 1박2일간이라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하였으며 한국의 대학박물관을 통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특히 필자에게는 국제대회를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온 박물관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활동범위를 다양화 하고 향후 있게 되는 2005년 세계대학박물관대회가 열리는 스웨덴 옘살라 대학에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 대학박물관 관계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본다. 2004년 세계대학박물관협회 서울대회는 오랜 시간동안 조직적인 준비를 해 온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행사에 참가한 대학박물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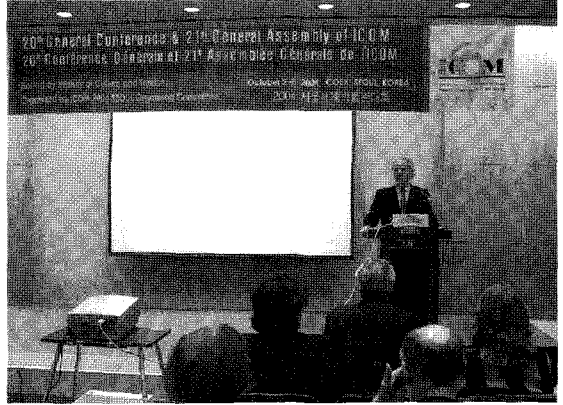


경주 장승앞에서 즐거워하는 UMAC 전임회장과 신입회장

행 사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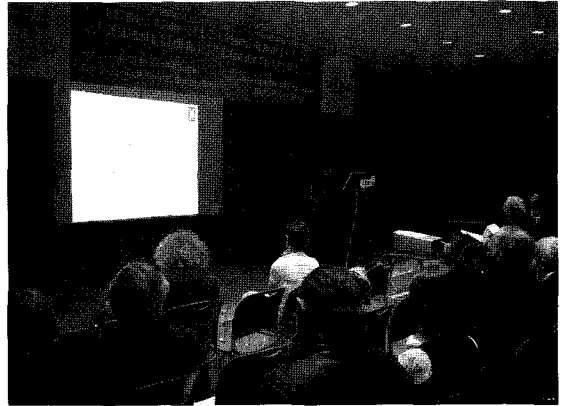
배기동 협회장의 대회인사



피터 스텐베리회장의 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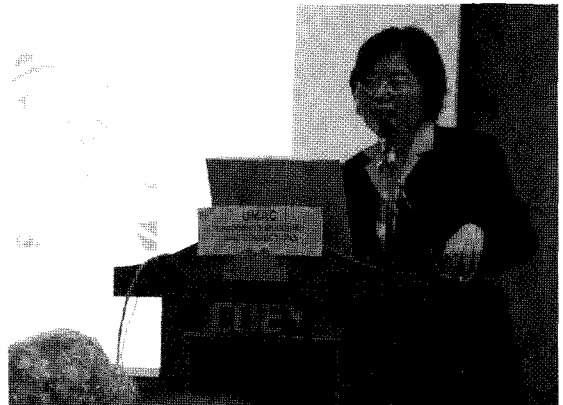
인병영부총리 환영사-최광식고려대 박물관장 대독



발표하는 모습



대회참여자들-서울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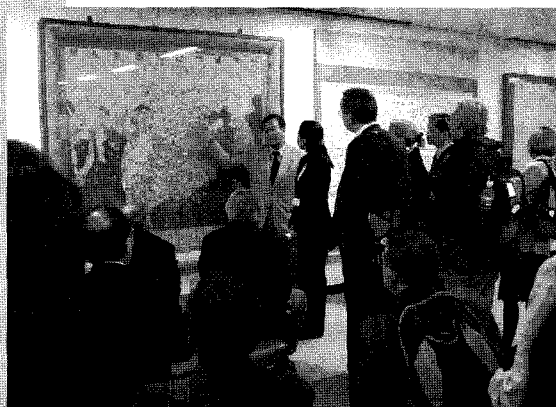
발표하는 모습



협회부스를 찾은 관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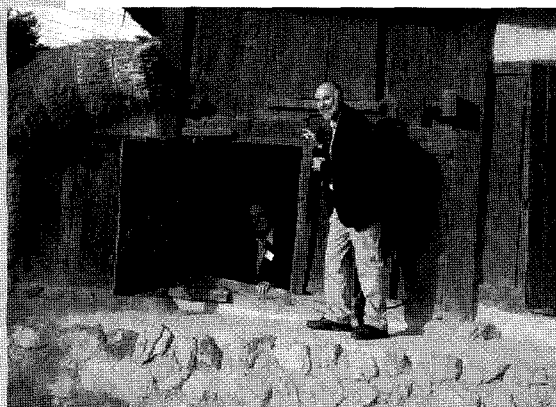
부스홍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들



서울대 규장각 투어



경주 양동마을 투어 1



경주 양동마을 투어 2



경주 양동마을 투어 3



영남대박물관 축하공연



영남대 민속원



단체사진-영남대박물관



계명대 한학촌



계명대-UMAC 신·구회장, 김권구관장



협회임원진 기념촬영